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이달 착공

새만금개발청, 개발계획 승인  
2024년까지 1조 3000억 투입  
인구 2만5000명 자족도시 조성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제협력역지 서측에 조성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조감도)의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변도시는 2024년까지 사업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면적 6.6km<sup>2</sup>,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의 강점인 내호와 외호가 어우러진 수변의 친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도시에 맞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계획했다. 수변도시 전체를 중·저밀로 계획하고 주거와 상

업,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토지 이용을 구상했다. 또 도시기능을 창의문화지구, 생태주거지구 등 7개의 거점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했다. 도시 내 3개의 호수와 도심을 관통하는 수로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는 상업특화시설, 생태주거

지, 공원 등을 도입해 수(水)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원·녹지 비율을 36%로 구성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에 인구를 유입하는 첫 도시 조성 사업으로, 이번 통합개발계획 승인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2024년까지 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관리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수요에 맞춰 적기에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인 만큼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경관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변도시가 개발사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남원시 한옥활용 야간 상설공연 국내대표 국악 공연 자리매김 전북문화재단 공모 9년 연속 선정

남원시의 한옥을 활용한 야간 상설공연이 국내 대표 국악 상설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2021년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사업'에 남원시가 선정돼 국·도비 1억3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민과 관광객이 밤시간 고즈넉한 한옥에서 국악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공모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된 쾌거다. 남원시립국악단을 주축이 되는 야간상설공연은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안숙선명창의여정 등을 무대로 춘향가, 흥부가, 정유재란 등 남원의 문화역사자원을 소재로 한 독특한 창작공연을 선보였다. 올해는 흥부전을 대중친화적으로 풀어낸 '시르령 실경 토티야'를 올해 초 새로 개관한 안숙선명창의여정에서 공연하며 관객들에게 흥과 신명을 선사했다.



남원시의 한옥을 활용한 야간 상설공연이 문화부 공모사업에 9년 연속 선정됐다. 사진은 안숙선명창의여정에서 열린 '시르령 실경 토티야' 공연. <남원시 제공>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지만 '남원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내년엔 펼칠 야간상설공연은 5월부터 9월 말까지 안숙선명창의여정에서 판소리 '춘향가'의 탄생배경을 여러 가지 상상력으로 풀어낸 '열녀춘향수절가'란 공연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을 전통예술을 특화한 남원만의 독특한 공연상품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롭게 단장하는 광한루원 주변 관광지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정읍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관왕 사업추진·금연·비만예방 전북도 표창

정읍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전북도 평가에서 3관왕에 올랐다. 정읍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북도 평가에서 사업추진 종합 성적 및 금연, 비만예방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아 전북도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계획·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선정했다. 정읍시는 2019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시민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을 선정해 중요 건강지표인 '걷기실천율' 향상을 목표로 건강 걷기 행사와 모바일 앱 '워크온'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걷기실천율이 2018년 33.8%에서 2019년 58.1%로 전년 대비 24.3%포인트 증가하

며 전북 평균 37.7%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연사업에서도 2018년도 18%에서 2019년도 42.6%로 전년 대비 24.6%p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정읍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기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서 '초기청자' 가마 확인

벽돌·토기가마·건물지 2동 확인  
"청자가마 발생·변화과정 밝힐 자료"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청자요지에서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초기 청자' 가마터가 확인됐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아산면 반암리 청자요지에서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초기 청자' 가마터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문화재청의 2020년 긴급발굴조사 공모사업을 통해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는 고창군 아산면에 자리한 계명산 줄기의 서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마터 일부가 훼손됨에 따라 유적의 훼손 방지와 성격규명, 보존관리 등을 위해 긴급발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벽돌가마(전축요·塼築窯) 1기, 진흙가마(토축요·土築窯) 3기, 퇴적구릉(폐기장) 3개소, 건물지 2동 등이 확인됐다. 특히 벽돌가마는 1호 진흙가마아래에서 중첩돼 확인됐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사적으로 지정된 진안 도토리 증평 청자요지에서 처음 확인됐다. 하지만 진안 도토리 가마는 벽돌가마를 파괴한 후 그 위에 진흙가마를 축조한 반면, 반암리 가마는 벽돌가마 폐기후 퇴적층과 퇴적구릉(1.5m 내외)이 형성된 다음 진흙가마를 조성해 벽돌가마가 비교적 잘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초기청자' 가마의 발생과 변화과정, 구조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호가마는 길이 35~40m, 폭 1.2m 내외로 추정되어 전형적인 '초기 청자' 가마의 형태를 보여준다. 퇴적구릉은 다량의 청자편과 청자를 구울 때 쓰였던 갑발, 가마 축조재료인 벽돌 등이 2~3m 정도

로 쌓여 있다. 건물지에서는 '官', '坪' 명 등의 명문기와도 출토돼 반암리 청자요지의 성격과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일대는 사적 제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사적 250호 고창 분청사기요지, 전라북도 기념물 제115호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요지 등 다수의 지정·비지정 가마유적이 분포하는 곳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도자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가마와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반암리 청자요지는 10세기 후반경에 '초기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 유적으로 판단된다. '초기 청자'를 생산했던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모두 확인돼 우리나라 청자 발생과 변화과정 및 성격과 운영시기 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학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일제강점기 흑백사진 속 미륵사지를 만난다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 1300년전



미륵사지 석탑(1910년) 크기를 가능할 수 있도록 탑 옆에 사람을 세워놓고 찍은 사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미륵사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볼 수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일제강점기 전북 익산 미륵사지를 흑백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익산박물관은 테마전 '100년 전 사진에 담긴 미륵사지 1300년'을 15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흑백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유리건판 사진 중 미륵사지 관련 사진을 고화질로 스캔해 마련했다. 제1부 '미륵사지, 세상에 드러나다'에서는 1910년 일본의 문화재 조사사업 때 실제로 드러난 미륵사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한다. 일제강점기 문서에 드러난 일본인 연구자들의 조사 내용과 평가 기록을 통해 당시 미륵사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제2부 '석탑, 시멘트로 보수하다'에서는 1915년 진행된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응급 수리 기록을 소개한다. 특히 석탑 실측도 청사진을 비롯해 수리 과정에서 사용한 보강철물(히빔)과 콘크리트 부재가 최초로 전시된다. 제3부 '미륵사지, 가까이 보다'에서는 일본인들이 바라본 미륵사지의 모습을 소개한다. 석탑의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 名 作 名 作 名 作

## 광화문父子작명가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 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